

# ‘한국기독교한림원 제3차 학술대회’ 본교회에서 열려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를 주제로



전·현직 신학대학 총장과 석좌교수 등 국내 저명한 신학자들의 학술단체인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翰林院, 이사장 조용목 목사님·원장 정상운 전 성결대 총장)의 제3차 학술대회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를 주제로 5월 19일(금) 오후 우리 교회 안양 성전에서 열렸다.

학술대회 개최예배가 목장군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의 사회로 임성택 박사(전 강서대 총장)의 기도,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본교회 송해원 지휘자의 특송,

조용목 목사님(한림원 이사장)의 설교 순서로 드러졌다. 조용목 목사님은 요한3서 1절~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5월 19일(금) 오후 우리 교회 안양 성전에서 열렸다.

학술대회 개최예배가 목장군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의 사회로 임성택 박사(전 강서대 총장)의 기도,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본교회 송해원 지휘자의 특송,

박명수 박사(전 서울신대 교수)의 기도와 원장 정상운 박사의 성명서 낭독 및 최대해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 연세대 의대 민성길 명예교수, 송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성경적 입장 △젠더이론의 발달과 의과학적 고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상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들은 논문에서 인본주의의 산물인 젠더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항목이 성경에 반하고 신앙생활은 물론 학문과 의료와 자유의 영역까지 침해하게 되는 폐해를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중차대한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광희 박사(평택대 교수)의 종합논평에 이어서 오벽교 박사(전 합신대 총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한림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등 유사 차별금지법 관련 조례를 폐지하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과서를 개정하라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징계하고, 관련 판결을 파기하라 △국회는 동성 커플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가오는 전 성전 연합 여름청년수련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다.

## 부천, 영등포성전 등 청년봉사선교회 일일수련회

### 시흥성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주제로 열려

광명, 부평성전 등 11개 성전 청년봉사선교회는 지난 5월 20일(토) 시흥성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히브리서 12:2)는 주제로 함께 청년 일일수련회를 실시하였다.

오전에는 9시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청년들은 교역자의 주제특강을 통해 청년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짐하고 이어서 청년특강 시간에는 성(性)에 대한 관념과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성경적 관점과 가치관으로 분별하여 바르고 건강하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낮에는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수련회 주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 ~ 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정왕동) T. 031-497-3732
- 영등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정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이충동) T. 031-662-3731
- 인중 : 평택시 인중읍 송남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천안시 정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회로1416번길 34-26(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편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명로 220(수서동) T. 02-459-3731
- 강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장유 : 울산시 처인구 명지로 37(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미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재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호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천동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충신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문로 180 T. 041-533-3731

#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6월 1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말씀의 은혜로 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봉사에 힘쓰는 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장우석 -

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구원장이셨던 이모의 전도로 누나와 남동생과 함께 3남매가 유치부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어린 나이에 무척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을 다녔을 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말씀에 감화를 받아 즐겁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현연하고 육적인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곤 했던 저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셔서 귀중한 교훈을 얻고 굳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난국에 처한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려 할 때에 목사님께서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진행과정과 최종결말”이란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낙망치 않고 소망을 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과 영생을 생각하고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도 교회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방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때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보람되어 조금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이어서 교회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당회장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서 강해설교 말씀을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식이 더 깊고 풍성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머지않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나라와 교회가 온 세계의 복을 화를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교회의 목표와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매일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난 2019년 송구영신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께 받은 말씀대로 변함없이 오늘도 주 안에서 희망을 품고 저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세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온 열방 중에 드러나게 될 것인만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통하여 저의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았고 저처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수요예배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배우니 더욱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말씀에 감동되고 감화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서 섭리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과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심을, 교회와 성도를 지극하신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봉사와 전도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오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신 설교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나날이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 목사님께서 연속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신앙의 위인들”에 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귀중한 교훈을 얻고 굳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난국에 처한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려 할 때에 목사님께서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진행과정과 최종결말”이란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낙망치 않고 소망을 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과 영생을 생각하고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도 교회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방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때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보람되어 조금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이어서 교회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당회장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서 강해설교 말씀을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식이 더 깊고 풍성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머지않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나라와 교회가 온 세계의 복을 화를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교회의 목표와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매일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난 2019년 송구영신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께 받은 말씀대로 변함없이 오늘도 주 안에서 희망을 품고 저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세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온 열방 중에 드러나게 될 것인만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통하여 저의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았고 저처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수요예배도 성전에서 예배를





은혜와 진리교회 조몽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13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375장(새찬송 331장)

# “누가복음 16장 1절~13절 강해 설교”

게 밋진 자들이 실제로 밋진 액수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기록하므로 그가 해고된 후의 생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두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품성을 부정하고 마치 예수님이 부정과 불의를 조장하거나 용인한 것처럼 비판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교활하고 불의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그 비유가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도의시해야 합니다. 비유는 마치 밤이나 호두와 같습니다. 밤송이의 겉껍데기나 호두의 껍질은 제거하여 버리고 그 알맹이를 먹듯이 비유는 밤송이나 호두 같아서 그 속에 교훈하려고 하는 알맹이를 취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써 뿌리는 비유의 뜻을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눅 8:10) 하였습니다.

이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이 비유의 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비유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비유는 청지기가 해고된 후에 채무자들이 그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하여 보살피 주도록 그들에게 선심을 씌으로써 자기 앞날을 위해 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그에게 신세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일반 도덕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이러한 청지기의 행위는 매우 불의하고 악합니다. 주인의 해고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또한 고의적으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입니다. 이는 형평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불의하고 사악한 소행을 묵과하거나 타당화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지목했습니다. ‘옳지 않은’이라는 번역보다 ‘불의한’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교훈하시려고 한 주된 요지는 청지기의 불의와 부정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대비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갚으고 있을 어떤 일에 대응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도호쿠’지방에서 발생한 진도 9도의 지진과 높이 15미터의 쓰나미로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3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이와테현’에서 쓰나미로 인하여 8천여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했는데 북부 ‘후다이’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쓰나미를 대비한 촌장의 지혜와 고집 덕택이었습니다. 해안가의 이 마을은 2011년 3월 11일 약 14미터 규모의 쓰나미가 덮쳤지만 높이 15.5미터가 넘는 방조제와 수문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 전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방조제와 수문을 만드는데 쓴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46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니다. 당시에는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당시 촌장이었던 ‘와무라 유키에’씨는 높이 15미터를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1896년과 1933년에 밀어닥친 쓰나미로 439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촌장은 ‘예산 낭비’라는 주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높이 15미터의 방조제와 수문 건설을 기어코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필연코 다가올 일을 대비하는 지혜에 관하여 잠언서에는 깨미를 예로 들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깨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깨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

식을 모으느니라”(잠 6:6~8)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앞날을 위하여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교훈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는 죽음 후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대비하는데 있음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① 어리석은 자는 기필코 닥쳐올 죽음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현재의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② 어리석은 자는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불확실한 내일을 믿고 일을 꾸미며 즐깁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약 4:14-16).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16-21). 인생에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비하는 자는 진실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종교, 철학, 재물, 과학기술, 선행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외에는 대비책이 없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은 “재물은 불의한 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경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유족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창 13:2) 야곱도 ‘심히 풍부하여’ 양 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습니다.(창 30:43) 예수님은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재물에 대한 통념대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였습니다. 재물로 사귀어야 할 친구란 불우 이웃을 의미합니다. 극빈자라고 불우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불우한 사람이란 불신자입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참된 신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재물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재물은 없어져도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하였습니다. 그 날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신앙을 갖게 되고 혹은 믿음을 견고히 갖게 되었던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지혜란 재물을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소유하느냐보다 재물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사소한 약속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실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대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소유하는 덧없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천국에서 맡게 될 영원하고 참된 것에 연관된다는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재물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를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시 맡은 재물을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가 함당치 않게 취급하면 천국에서 각자의 몫으로 할당되는 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면 기본적으로는 모두 동등한 행복을 누립니다.

계시록 21장에 다음과 같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쓰상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을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는 자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1-7).

그런데 성도들은 생명을 강가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한가롭게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은 늙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다치거나 병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집에 문들이 다 닫혀있는데 홀연히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실 때 문을 열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육체처럼 시공간이나 물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니 활동 범위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제한 것은 계시되어 있지 않으나 천국에서 성도들의 영광과 지위와 임무에는 차등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천사도 계급과 서열이 있으며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은 호위 군사인 천군의 우두머리이고, ‘가브리엘’은 계시 전달을 하는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하리라**”(계 5:10).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계 20:6)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참된 것으로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다모데천서에 기록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겠도다”(딤후 6:9,10) 하였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유익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악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삶의 목적이 된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게 되어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신자가 재물로 마음을 빼앗기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결국 믿음에 손상과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그 영혼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기록 중에서 발람 선지자는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하게 보여준 대포적인 사례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시작하는 무렵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행군에 놀란 모압 왕 발람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술법으로써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여 당대의 저명한 복술가인 발람을 불러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교섭할 자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들을 하루 유숙하게 하고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아라.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에게 복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왕이 보낸 자들에게 거절의 뜻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락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왕의 전갈을 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로로 올라오십시오. 그대를 성이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왔다는 이 무리에게 화가 내리도록 저주를 빌어주십시오**.” 발람은 일언지하에 그들을 물리쳐야 할 것인데도 지난번처럼 그들을 하룻밤 유숙하도록 하는에 하나님에게 또 물었습니다. 발람의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졸라대거든 따라가거라. 하지만 가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하였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발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확실한 답을 주었는데 왜 또 묻느냐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해 주어도 자식이 계속 고집하고 졸라대면 “**정그리면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허락하신 것으로 아는 자는 명정한 자식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알겠습니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튿날 발람은 나귀에 안장을 엮고 발락왕에게로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중도에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으니 나귀는 칼을 빼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발람은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양쪽이 담으로 둘러쳐진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고 앉았습니다. 나귀가 몸을 포도원 담벼락에 마구 비벼대자 발람은 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발람은 더욱 힘껏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나귀는 천사를 바라보고는 무서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였다고 이처럼 세 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하고 발람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인님이 마구 다니다 나귀가 아닙니까? 이제껏 지극처럼 마구 날뛰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하니 “**없었지**.”하고 발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게 해주시니 발람은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어찌자고 이렇게 나귀를 세 번씩이나 후려치느냐? 나는 네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나섰다. 네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타고 있는 나귀가 네 목숨을 구하려고 나를 보고 세 번씩이나 피하였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만 살리고 너는 벌써 죽고 말았을 것이다**.” 발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 제 잘못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발람에게 “**가거라. 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거라. 하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하였습니다.

발락왕은 직접 국경까지 나가서 발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중하게 모시려고 높은 귀족들을 보내었던 일 그리고 자신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재물과 존귀한 지위를 주기로 한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발람은 칼을 빼어 든 천사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말이 귀에 쟁쟁하여 발락왕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는 계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람의 중심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로 인해 발락왕으로부터 후한 보상을 받았으나 결국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탐욕은 마치 거머리 같아서 마음에 달라붙으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재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훈을 얻었습니다. 재물은 사랑하고 사모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재물이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요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아무렇게나 취급할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사용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와 결정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유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짓습니다. 청지기 비유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매우 중대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과 재능을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남도록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획득하고 사용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면류관을 얻으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영원하고 참된 것을 풍성히 향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